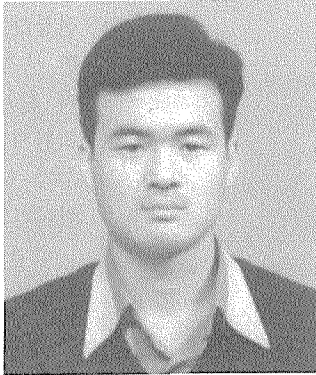


상어 이야기



박종준
 <유공해운 이등항해사>

수십번을 넘나 들어도 낯선 길은 매한가지 푸른 물빛마저도 성하의 태양 아래 그 깊은 속을 드러내고 폴폴 끓어 오르는 듯한 김 빠지는 느낌. 낯선 인도양.

늘 그렇듯이 입항을 앞두고 선교(Bridge)로 오르면 광막한 사막의 건조한 냄새 수 백리 바다를 건너 찾아와 내뿜을 떠나지 않고 쉽도 없이 솟아 오르는 땀으로 가슴이 막혀 온다. 이런 계절에 배를 타고 페르시아만 걸프(Persian Gulf)를 한 번이라도 와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길이 338.1m, 폭 51.8m의 거대한 철제구조의 유조선 위에서 입항을 준비하느라 닭똥같은 땀을 설새없이 흘리는 우리 유공해운 탱커

맨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으리라. 하여, 12개월 가까이 승선하여 친구처럼 정이 든 우리 유공 파이오니어호도 힘들게 31,000마력의 엔진을 쿵쿵거리며, 물길을 헤치느라 뒤뚱거린다. 강판 위로 사람과 배의 헉헉거리는 열기가 가득하다.

C DECK에 위치한 AIR CONDITIONER도 모래냄새 가득한 이 더위에 사람보다 더 지쳐 3층 위의 선교까지 그렇지 않아도 차가운 기운 덩뎁한 바람을 쏟아 내느라 온 종일 끄끄거린다. 모두들 한 여름 온도계에 맥없이 짓눌려 있다.

입항하여도 승하선 교대를 하거나 사고로 다쳐서 현지 병원의 신세를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래땅 한번 밟기 어려운 이들 콧대 높은 산유국의, 멋이랄곤 하나도 없는 항구에 입항하는 이런 며칠간의 시간도 2~3일만 지나면 열흘간은 원유적하 작업으로 바빠 근무해야만 하는 까닭에 연료유 수급을 위해 잠시 머무는 우리 27명의 선원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망중한의 여유가 생기는 이런 시간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은 별다른 낚시도구도 필요치 않고 그저 사주부 조리장에게 부탁해서 몇 마리 얻은 오징어 미끼를 수심 5,60m의 심해(?)에 다 넣어 두고서 육질 좋고 눈빛 강인한 돛이라든가 다리 걸려주기를 노심초사하는 그런 물욕, 식욕이 앞서는 낚시질이다.

입항 이를 전부터 선내는 출조준비(?)가 한창이다. 선장님은 선장님대로 손수 구입하신 제법 늘씬한 릴낚시대와 손맛 좋은 메가리용 낚시바늘을 들고 선교 위로 올라 오셔서 「2항사! 바쁘지 않으면 타수 신씨 조금 올라오라고 하지」 타수 신씨로 말할

것 같으면 거문도 출신에다 어릴 적부터 낚시와 함께 자라 온 정통 바다사나이가 아닌가! 멋진 손놀림으로 적당히 바늘을 열 개 정도 쥐고, 밀짚모자를 깨끗이 닦아 낚시대 옆에 고이 모셔 놓으면 드디어 출조준비 완료.

멀리 들성 들성 보이는 묘박중인 선박들. 몇 년째 다닌 행보라 낯익은 등대도 어렴풋이 보이고 흘깃 흘깃 눈길을 던져 주는 이 바다의 갈매기들도 제법 정이 든 듯하다. 싱싱한 녹음이라곤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온통 모래고 흙이고 돌인 덩덤한 풍경 아래서 지글거리는 뽕약벌과 짜증나는 더위를 피해서 어렵게 어렵게 향긋한 여운을 찾아 느낄 수 있는 것도 졸업후 유조선만을 지키며 참으로 열심히 이곳 페르시안 걸프를



다닌 뱃사람의 여유라고 생각하니 또 다시 지나간 해상의 나날들이 스물 스물 가슴속을 헤집기 시작한다.

이번 항차에도 지난 1월 5일부터 카타르의 움사이드항을 시작해서 10일 동안 아랍 에미리트연합(U. A. E.)의 제벨다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야야마, 그리고 오만의 M. A. F. 을 거치는 적하 스케줄이 나와 있고 그 전에 연료유 수급을 위해 이틀간 이곳 후자이라항에 정박해야 하므로 투묘지점은 이미 통보를 받았지만 중동, 특히 오만만에 정통한 우리 뱃사람의 정신은 또 한번 발휘된다. 해도를 살살이 뒤지고 검토해서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입질이 기대되는 곳으로 투묘지점을 선정하느라 선교의 분위기가 진지해진다. 사실, 평균 수심이 50~100m인 이곳 후자이라항 근해에서 투묘를 할 경우에는 선장님께서 여간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다. 수심이 깊어 투묘하는 순간부터 16,200kg의 닻의 움직임을 파악하느라 조심스러워 지고 그렇다고 해서 묘박중인 선박들이 많고 간간이 세찬 바람도 한번씩 불어대는 이런 바다에서 육지 가까이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육지로부터 떨어질수록 수심은 100m를 넘게되는데 이 정도면 낚시줄 한 번 던지고 걸어 올리기가 꽤나 귀찮게 된다. 이렇게 정박시 최대의 요건인 안전문제를 바탕으로 주위의 사정을 훑어보고 여러사람들의 경험

과 의견을 종합하여 고심끝에 묘박지를 선정하여 닻을 내리면 선수부터 선미까지 갑판 곳곳에 드리워지는 낚시줄의 수가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한다.

갑판부, 기관부, 사주부 가릴 것 없이 물때(조석)를 맞춰 낚시줄을 드리운 사람들의 얼굴엔

40cm가 족히 넘는 살집 좋은 돔 한마리의 꿈이 흘러내린다. 다행히 선장님의 예상이 들어맞아 장소 좋고 물때 좋아 돔을 비롯한 굵직 굵직한 놈들이 몇 마리씩 올라오면 금새 갑판 위엔 활기가 돈다. 이를 후면 정신없이 바빠져야 할 운항계획 속에서 오늘 저녁만은 어선이 되어 버린듯 연신 환호소리가 피어 오른다. 일과를 마치고 낚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 중에는 손끝에 묻은 십여년의 경력으로 양념장을 적당히 버무려 갑판 한 구석에 자리를 만드는 고마운(?) 사람들도 생겨난다. 드디어 싱싱한 횡거리가 갑판위에 펼쳐진다.

마침, 메가리 떼를 만나 출조에 만전을 기하신 선장님의 얼굴엔 화색이 만연하다. 밀짚모자에 작업복을 두르신 모양새가 여간 조력이 깊어 보이지 않으셨는데, 오후 나절 별 입질이 없어 잡은 것이라곤

그저 그런 자잘한 어종뿐이어서 섭섭하셨을 터인데, 때마침 준비한 메가리 낚시를 사정없이 물고 올라오니 아예 낚인 메가리를 떼어 낼 틈도 없다.

물통이 찰 때마다 헛거리는 수영장속에 집어 넣고 또 몇마리는 소금에 절인 뒤, 바람에 잘 말려 놓으면, 페르시안 걸프 내의 계획된 모든 항구를 돌며 하역작업을 끝낸 후, 대양으로 벗어나서 부서원들간에 모처럼 회식을 할 때에나 아침식사에 살짝 살짝 구워내 놓으면 더위에 지친 식욕에 미각을 돌구기에는 비길 데가 없다. 메가리는 또한 회를 쳐도 별미다. 맛으로 따진다면야 육질이 단단한 돔이 최고고 다음으로 덩치가 커서 먹을 게 많은 멍텅구리라는 놈도 있지만, 메가리도 크게 뒤질 바 없어 연신 올라 오는 싱싱한 메가리를 갑판 한 곳에서 숙련된 솜씨로 올라 오는대로 회를 떠 내면 낚시라고는 아예 해 본 적도 없고 낚고기의 버린내조차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나같은 문외한들도 금새 그 쫄깃 쫄깃한 육질의 맛에 반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여럿이 어울려 왁자지껄 크게 웃고 떠드노라면 울산을 출항하여 20일 가까이, 그동안 묵묵히 해와 달과 바다만을 지켜보며 달려 오는 동안 쌓여온 단절된 생활의 고독감이나 더위에 지친 피로감이 이내 꿈결같이 녹아 내리는 것을 느낄수 있다. 또한 물때가 바뀌어 파장을 할 무렵쯤이면 오후의 강렬했던 태양은 모래단에 걸려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시원한 저녁바람도 조금씩 불어 와 깊게 늘어진 낚시줄을 지키며 한번쯤 우리 달려 가는 내일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기도 하다.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서로 웃다보면 한번씩 대립되던 거친 모습들은 사라져 버리고 모두가 정다운 친구의 모습으로만 남아 이것 저것 숨김없이 터놓곤 하는데 이럴 때면 우리 뱃사람들은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같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한 나절의 낚시가 끝나고 보니 돔이 20마리, 멍텅구리 15마리, 상어 5마리, 메가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낚아 올랐다. 행운이었다. 정박중 잡은 대부분의 고기는 수영장에 산 채로 넣어 두고 있다. 작업을 마치고 나면 또 한번 멋지게 회식을 하기 위해 싱싱하게 보관하려면 수영장이 최고인데, 저녁무

렵 장난기 많은 일항사님이 상어 두마리를 넣어 두기 전까지는 완벽한 아이디어였다. 상어래야 기껏 어른 팔길이 정도의 어린 놈이었고 두마리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상어라는 Name Value 때문에 상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우리들로서는 아무리 날씨가 덥기로서니 감히 수영장으로 뛰어들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었다. 일항사님이 낚아 직접 넣어 버렸는지라 나도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수영장에 상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입항시 필요한 서류 및 장비들을 챙기느라 바쁘게 서두르다 보니 미처 수영장으로 갈 틈도 없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수영을 즐기는 이들 중에 기관부 당직자 몇 사람은 수영장 속의 상어 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꿈에도 생각치 못했을 것이다. 식사시간이 되어 사관식당에서는 잡은 헛거리로 전 선원 모임의 자리를 갖자는 등 갖가지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참인데, 갑자기 다급한 비명소리가 저녁하늘로 솟구쳐 오르는게 아닌가! 「으악! 상어다!」 수영장이었다. 식사를 하다 말고 모두들 황급히 뛰어 나가보니 20일전, 울산에서 호기심 많은 맑은 눈망울로 신기한 듯이 온 갑판을 두리번거리며 올라 오던 전승기관원 김군이 질겁을 하고 수영장에서 뛰쳐 나오려 애를 쓰고 있다. 저 물 맑은 남해에서 20여년을 살아 왔는지라 수영도 잘하고 물속 잠수도 선내에서는 최고임을 자부하는 당찬 친구였는데, 어쩌다 두마리 새끼 상어에 그만 기절 일보직전이었던 것이다. 맑은 없으시지만 선장님의 가슴도 웃음으로 떨리고 있고, 모두들 재미있는 듯 누구 하나 도와줄 생각없이 빙그레 웃기만 하다가 하나 둘 다시 식당으로 사라지고 만다. 한참만에, 헉헉거리며 기어 올라 온 이 바다의 사나이는 그만 맥이 풀리는지 팬티도 벗겨진 모습으로 쓰러지고 만다. 사관식당, 부원식당에선 모두들 낄낄거리며 웃고 있다.

오늘밤 별미 헛거리로 사용될 어린 상어가 마지막까지 조스의 위상을 굳게 지켜가는 의연한 모습에 또 한번 신선하게 웃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으하하하하.....